

연구논문

# 식민지기 이병도의 고대사 연구 재검토 실증사학의 속살에 대하여

---

심희찬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근현대사상사 전공

hcshim@yonsei.ac.kr

---

- I. 머리말
  - II. 역사학자로서의 출발
  - III. 독자적 역사관의 전개
  - IV. 좌절과 전환
  - V. 맺음말
-

## I. 머리말

---

한국의 역사학자 가운데 이병도(李丙燾, 1896~1989)만큼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인물은 없을 것이다. 그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연구를 강조하는 실증사학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이끈 지식인으로서 많은 존경과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야 역사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이병도는 이른바 ‘식민사학’의 총수로서 한국의 주체적인 역사 인식을 일그러트린 장본인으로 비난받기도 한다. 이병도의 역사학을 둘러싼 이러한 관점의 대치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학문적 평가를 넘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다양한 대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상술한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입장도 택하지 않는다. 도리어 이 두 가지 관점은 이병도를 한국 사학사의 문맥 속에 정당하게 위치 짓는 작업을 똑같이 방해해 왔다고 간주한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기를 중심으로 제국 일본의 아카데미즘 사학을 습득한 이병도가 보여주었던 대단히 흥미로운 한국 고대사의 내러티브를 추적해 볼 것이다. 그는 식민지 출신의 젊은 엘리트로서 제국 본국의 역사학계에도 뒤지지 않는 성과를 산출해 냈다. 그것은 실증주의의 영향으로만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재야의 일부 역사가가 말하는 것처럼 그저 식민사학을 다시 반복하고 내화하는 내용도 아니었다. 이병도는 일본의 역사학자들과 다른 프레임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고대사를 재해석하고자 부단히 애썼다. 이병도는 분명 일본 역사학계의 자장 아래 연구자로 성장했지만, 그러한 틀 아래 머무르기는커녕 끊임없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식민지라는 환경은 엄혹했지만, 그의 역사관을 날카롭게 버리는 조건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병도는 실증사학의 경계 저편을 엿보게 된다. 그 자

신은 실증사학의 영역 내부에 스스로의 학문을 가두고자 했지만, 제국의 아카데미즘 사학이 강조하는 과학적·합리적 실증주의라는 수사에 매몰된 채 그들과 대결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병도는 자신도 모르게 실증사학의 속살을 드러내고 마는데, 바로 이 점에서 그의 역사학이 지닌 사학사적 의의가 한층 도드라진다. 이병도의 역사학을 읽어 내기 위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이 아닌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실증사학이란 무엇인가? 실증사학을 추동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병도가 실증사학을 대표한다고 할 때 그 실증사학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물음을 따라가다 보면 비로소 해방 후에 이병도가 보여준 태도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할 수 있는 시점을 얻게 될 것이다.

최근 이병도와 그의 역사학을 다룬 중요한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었다. 조인성은 일련의 논고를 통해 이병도 역사학의 구체적인 내용과 논점을 꼼꼼히 다루고 그 사학사적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연구를 진행했다.<sup>1</sup> 우에야마 유리카(上山由里香)는 이병도의 출생 및 성장 과정, 일본 유학과 해방 이후의 교육 활동 등을 상세히 조사한 학위논문을 통해 그의 역사학을 더욱 넓은 배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다.<sup>2</sup> 홍종욱은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이병도의 실증사학을 랑케 및 일본을 경유한 ‘역사주의’와 비교하는 매우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sup>3</sup> 이들 연구를 통해 이병도 역사학의 구체적인 내용, 생애와 이력,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이 다시금 조망을 받고 있다. 이

1 조인성, 「이병도의 한국고대사연구와 식민주의사학의 문제: 《한국고대사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4(2009a); 조인성, 「이병도의 한국고대사연구: 한사군·삼한의 역사지리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55(2009b); 조인성, 「이병도의 『조선사개강』: 1920년대 초반 문화사학의 일례」, 『백산학보』 98(2014).

2 우에야마 유리카, 「이병도의 한국사 연구와 교육: 1915-1954년 활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3 홍종욱, 「실증사학의 ‘이념’: 식민지 조선에 온 역사주의」, 『인문논총』 76-3(2019).

글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병도 역사학의 줄기와 골격이 형성된 식민지기의 논고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증사학이라는 역사학의 전제, 혹은 주박에 관한 나름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다만 상고사에서 조선시대사까지 워낙 방대한 영역을 다루었던 이병도 역사학의 전부를 살펴볼 수는 없고, 우선 한국 고대사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을 한정했음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sup>4</sup>

## II. 역사학자로서의 출발

---

1896년 경기도 용인군에서 태어난 이병도는 1915년 3월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제3고등예과에 진학했으며, 1916년 9월 동 대학 문학부 사학급사회학과(史學及社會學科)에 입학했다.<sup>5</sup> 이병도가 입학했을 무렵까지 와세다대학은 아직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학’은 아니었다. 관립 제국대학에 한정되었던 ‘대학’의 범주가 공립 및 사립의 전문학교 등으로 확대된 것은 1918년 12월 6일에 공포된 ‘대학령’이 이듬해 4월 1일에 실시된 이후였다. 그리고 이들 ‘대학’의 주변부에 있던 교육기관은 대부분 강사진을 제국대학에서 충원하고 있었다.

1882년 도쿄전문학교로 출발하여 1902년 학제를 대학부로 재편한 와세다대학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이미 와세다대학에는 구메 구니타케[久米

---

4 참고로 이병도는 종종 자신의 역사 연구를 “유학사(儒學史)”, “도참사상(圖讖思想)”, “고대사”의 세 갈래로 회고하곤 했다[이병도, 「나의 회고록」(1983), 『두계이병도전집 14』(과주: 한국학술정보, 2012b), 480~481쪽]. 지면상 ‘유학사’와 ‘도참사상’에 관해서는 다른 글에서 순차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5 우에야마 유리카, 앞의 논문(2017), 16~35쪽.

邦武], 쓰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 우치다 긴조[内田銀藏],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등 오늘날에도 널리 알려진 도쿄제국대학 출신의 쟁쟁한 역사학자들이 출강하고 있었고,<sup>6</sup> 이병도가 유학했을 무렵에도 마찬가지로 게무리야마 센타로[煙山專太郎], 오모리 긴고로[大森金五郎], 시미즈 다이지[清水泰次], 다카쿠와 고마키치[高桑駒吉], 이치무라 산지로[市村瓊次郎] 같은 도쿄제국대학 출신 역사학자들이 강사진을 꾸리고 있었다.<sup>7</sup> 물론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나 요시다 도고[吉田東吾] 등 도쿄제국대학 이외의 출신자들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당시 와세다대학에는 일본의 근대역사학을 이끌었던 도쿄제국대학의 학풍이 강했으리라 생각된다.

유학 시절 이병도는 일본인 교수들과 친밀하게 지냈다. 처음 서양사 공부에 뜻을 두었던 그는<sup>8</sup> 조선사 전공자였던 요시다 도고, 그리고 동양사 전공자였던 시미즈 다이지의 지도를 받으면서 조선사 연구로 방향을 틀었다. 또한 시미즈의 소개로 도쿄제국대학에서 조선사강좌를 맡고 있던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를 만나게 되고, 그와 사이가 좋았던 쓰다 소키치에게도 주목을 받게 된다. 서양사 전공자였던 게무리야마 센타로는 3.1운동 이후 조선의 불안한 정세를 걱정하여 이병도에게 일본 내 중학교 교사 자리를 추천해 줄 뜻을 전하기도 했다.<sup>9</sup> 하지만 이병도는 이에 응하지 않고 1919년 7월 무렵에 귀국한다. 중앙학교(이후 중앙고등보통학교)의 교장이었던 최두선으로부터 교

6 심희찬, 「일본 비틀기: 최남선과 일본의 역사학」, 『사이』 24(2018), 45~48쪽.

7 우에야마 유리카, 앞의 논문(2017), 40~49쪽.

8 와세다대학 예과를 수료한 이병도는 사학급사회학과로 진학하지만, 장래의 취직 등을 생각해야 한다는 현상윤 등 주변 조선인 선배들의 충고를 듣고 법과로 진로를 바꾸고자 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사학급사회학과에는 학생이 너무 적고 반대로 법과에는 학생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병도, 앞의 글(1983), 앞의 책(2012b), 462~463쪽.

9 위의 글, 461~467쪽.

원 초빙 청탁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두선은 이병도의 와세다대학 2년 선배였고, 교주 역시 와세다대학 출신인 김성수였다. 이병도는 와세다대학 1년 선배로서 3.1운동 때 투옥된 현상윤을 대신하여 일본사·외국사·일본지리·세계지리·영어 등의 강의를 담당했다.<sup>10</sup> 훗날 이병도는 유학 생활을 되돌아보며 “지성의 계발과 성장은 역시 대학 시절이라고 보아야겠고 나도 이 시절에 인생의 이정표랄까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진 셈이었다. 결국 국사를 전공하게 된 것은 대학의 강의와 자아반성” 덕분이었다며,<sup>11</sup> 최두선을 비롯하여 장덕수·신익희·현상윤·김예제·이광수 등과 함께 지냈던 시간을 “조대(무대) 유학생 동창의 황금기”였다고 회상한다.<sup>12</sup> 스무 살 전후의 이병도는 제국대학 출신의 강사들이 출강하던 와세다대학에서 역사학의 기초를 다졌으며, 그 인맥을 발판으로 금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중앙학교에서 이병도는 일본사 강의 두 시간을 몰래 나누어 조선사와 일본사를 가르쳤다.<sup>13</sup> 동시에 중등 정도의 강의록을 간행하기 위해 ‘조선사개설’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비록 강의록은 여러 사정이 겹쳐 출판되지 못했지만, 송진우의 의뢰로 그 내용을 《동아일보》에 「조선사개강」이라는 제목으로 1923년 9월 28일부터 연재한다.<sup>14</sup> 역사학자로서 이병도의 본격적인 데뷔였다. 비슷한 시기 최남선은 《동명》에 「조선역사통속강화계제」를 연재했고, 안확의 『조선문명사』(1923), 장도빈의 『조선사요령』(1923), 황의돈의 『신편 조선역사』(1923), 권덕규의 『조선유기』 상·중(1924~1925)이 간행되는 등 문화통치로의 전환과 함께 조선사 연구가 활발

10 위의 글, 467~468쪽.

11 이병도, 「나는 왜 사학자가 되었나」(1973), 앞의 책(2012b), 430쪽.

12 이병도, 앞의 글(1983), 위의 책, 466쪽.

13 위의 글, 468쪽.

14 위의 글, 469쪽.

히 이루어졌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1915년에 시작했던 ‘조선반도사편찬사업’을 1922년부터 ‘조선사편찬위원회’로 일신하여 새로운 역사편찬사업을 시도하고 있었다.<sup>15</sup> 이러한 와중에 일본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온 엘리트 청년이 《동아일보》라는 핵심적인 매체에 조선사 관련 글을 연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병도는 아직 통사로서의 조선사개설을 써 나갈 만큼 역사학자로서의 축적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일본에서 쓰다와 이케우치가 보내 주는 논문과 저서를 읽고 있었지만,<sup>16</sup> 함께 공부할 동료도 없었으며 총독부가 장악한 관련 자료를 파악할 여력도 없었다. 게다가 중앙학교의 교원 생활에 더하여 퇴근 이후에도 여기저기서 부탁을 받은 영어 수업에 나가느라 지칠 대로 지친 이병도는 ‘늑막염’을 앓게 되었고,<sup>17</sup> 결국 「조선사개강」은 1924년 2월 24일 88회 기사(실제 연재는 87회)를 마지막으로 미완인 채 연재를 중단하고 만다. 이병도는 훗날 「조선사개강」에 대해 “지금 보면 너무도 유치하여 구역이 날 정도”라고 스스로 폄하했으며,<sup>18</sup> 이 글을 자신의 연보 및 논저 목록에도 넣지 않았다. 또한 후학들이 편집한 전집에도 「조선사개강」은 실리지 않았다.

이병도가 「조선사개강」을 이처럼 철저히 부정하는 것은 이 글의 내용이 본인의 독자적인 연구 성과가 아닌 조선 후기의 실학 및 당대 일본 역사학계의 논의를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가 생각하기에 당시의 자신이 아직 역사학자로서는 여러모로 미숙했던 점, 1920년대 후

---

15 조선총독부의 역사편찬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우,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과 조선사 편수회』(서울: 아연출판부, 2018)를 참조.

16 이병도, 앞의 글(1983), 앞의 책(2012b), 469쪽.

17 위의 글, 469쪽.

18 위의 글, 469쪽.

반부터 그의 논의가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점 등도 그 이유일 것이다. 「조선사개강」 1회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금일의 조선과 만주와는 지리상 서로 연결하여 잇슴으로 자래(自來) 역사상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 교통상 자못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더욱 고대에 잇서서는 만주의 남부와 반도의 북반(北半)은 혼이 동일족속(同一族屬)에 의하여 접거 되얏었다. 그러므로 금일 정치적 자연경계로 인하는 압록 두만의 양강은 상대(上代)에 잇서서는 그다지 종족을 분(分)하고 언어 습속을 다르게 하는 중요한 천연적 장벽이 아니엇었다. 도리어 동일족권(同一族圈) 혹은 동일국가(同一國家) 내의 일하천(一河川)에 불과하얏었다.<sup>19</sup>

또한 2회 기사에서는 “상대조선사는 단순하게 금일의 조선 즉 반도 안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만 한(限)할 수 업다. 널니 북방만주에서 이러한 사실(史實)까지 포함하여야 하겠다. 실로 만주상대사는 조선역사상에 잇서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즉 고대조선에 잇서서는 만주의 역사와 조선 반도의 역사를 분리시킬 수 업다.”고 논한다.<sup>20</sup> 「조선사개강」 연재 당시의 이병도는 이와 같이 조선의 역사를 만주의 역사와 겹쳐서 읽고 있었다.<sup>21</sup> 물론 조선사에서 만주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는 신채호·박은식·최남선 등 앞선 세대의 서술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그렇지만 가령 『독사신론』(1908) 등에서 북방의 부여족을 주족(主族)으로 강조하면서 기존의 마한정통론을 부정

---

19 이병도, 「조선사개강 (1)」, 《동아일보》, 1923년 9월 28일.

20 이병도, 「조선사개강 (2)」, 《동아일보》, 1923년 9월 29일.

21 이병도는 “만선 兩地가 동양의 最古 문명국인 중국과 근접하여 彼文化의 영향을 受한 일이 아울러 朝鮮上古代의 문명을 빛나게 하얏었다.”고도 언급한다. 이병도, 「조선사개강 (2)」, 《동아일보》, 1923년 9월 29일.

했던 신채호와 달리, 이병도는 “조선인의 원조(遠祖)”를 “숙신, 예맥과 밋 한(韓)”으로 규정하고 “이들 제족(諸族)은 아세아 북부에 거(居)한 타민족과 가치 우랄알타익(Ural-altaic)이란 인종의 계통 중에 속한 자”라며 “그 족(族)으로 증원에 드러운 자는 한민족(漢民族)이 되고 만주에 입(入)한 자는 통고사족(通古斯族)인 숙신과 예맥이 되고 조선반도에 진출한 자는 한족(韓族)이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sup>22</sup> 즉,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인의 조상인 숙신·예맥·한이 한(漢), 그리고 통구스족과 공통의 인종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韓)을 “만주의 제족과는 전연 계통을 달니 할 것이라 주창”하는 것은 “오해”다.<sup>23</sup>

나아가 당시의 이병도는 “기자전설(箕子傳說)” 역시 부정한다.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기자가 은(殷)의 현인으로 자국 멸망 후 지나(支那) 동북경(東北境)에 피주(避住)하였든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sup>24</sup>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기에 “한인(漢人)으로서 육상 혹은 해상으로 요동 방면에 이민하여 압록강 내외에 만연한 맥인(貊人)을 다소 위압하는 집단이 만히 잇섯는데 그중에 기자의 후예라 자칭하는 위인이 잇서 심지어 북부 조선지(朝鮮地)에 국(國)을 건(建)”했다고 추정한다.<sup>25</sup> “기자동래설”을 후대에 “채식(彩飾)”된 역사로 간주하는 것이다.<sup>26</sup> 한편 위만에게 밀려난 기준이 “마한을 공파(攻破)하고 스々로 한왕(韓王)이 되었다.”는 마한정통론에 대해서도 “패잔(敗殘)의 무리”였던 기준이 강성한 마한을 장악했을 리가 없고, 단지 “일번신제후(一藩臣諸侯)로 잇섯거나 혹은 그대로 우거(寓居)하여 보호를 바닷거나 한데 불과하였스리라고” 비판한다.<sup>27</sup>

22 이병도, 「조선사개강 (1)」, 《동아일보》, 1923년 9월 28일.

23 이병도, 「조선사개강 (1)」, 《동아일보》, 1923년 9월 28일.

24 이병도, 「조선사개강 (4)」, 《동아일보》, 1923년 10월 2일.

25 이병도, 「조선사개강 (6)」, 《동아일보》, 1923년 10월 4일.

26 이병도, 「조선사개강 (6)」, 《동아일보》, 1923년 10월 4일.

27 이병도, 「조선사개강 (7)」, 《동아일보》, 1923년 10월 5일.

앞선 연구들에서 빈번히 지적되었듯이 이러한 이병도의 고대사 인식은 당대 일본 역사학계의 관점을 계승한 것이었다.<sup>28</sup> 일본 동양사 연구의 선구자 나카 미치요는 이미 1894년에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살던 인종을 숙신, 맥, 한으로 파악한 바 있다.<sup>29</sup> 나카가 교장을 지낸 현립지바중학교[縣立千葉中學校]를 졸업하고 도쿄제대 사학과에서 공부한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언어계통론에 입각하여 “조선어와 Ural-Altai어 어근의 유사함”을 주장했다.<sup>30</sup> 시라토리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총재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를 설득하여 1908년 1월에 만선역사지리조사부를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이병도와 친하게 지냈던 이케우치와 쓰다, 그리고 훗날 조선사편수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는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가 있었다.<sup>31</sup> 만선역사지리조사부는 1913년에 『만주역사지리』(2권)와 『조선역사지리』(2권)를 출간했으며,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으로 이관된 후 1915년부터 1941년까지 『만선지리역사연

- 
- 28 조인성, 앞의 논문(2009b); 우에야마 유리카, 앞의 논문(2017); 송호정, 「일제 강점기 이병도의 고조선사 연구」, 『선사와 고대』 65(2021).
- 29 那珂通世, 「貊人考」, 『史學雜誌』 5-5·6(1894), 84쪽.
- 30 白鳥庫吉, 「朝鮮語とUral-Altai語との比較研究」, 『東洋學報』 5-1(1915), 『白鳥庫吉全集 3』(東京: 岩波書店, 1970), 2~3쪽.
- 31 남만주철도주식회사와 만선역사지리조사부에 관해서는 박준형,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공간 재편과 만철조사부』(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를 참조. 이병도는 쓰다와 이케우치에 대해 “나의 연구생활에 있어 본격적이고 직접적인 자극과 격려를 준 분들은 역시 무대의 쓰다 박사과 그의 소개로 내가 在東京時에 알게 된 이케우치 히로시 박사”라고 술회한다[이병도, 「나의 연구생활의 회고」(1955), 앞의 책(2012b), 435쪽]. 특히 이케우치는 이병도의 학위논문을 도쿄제대에서 받아주려고도 했었다[이병도·정홍준, 「실증사학과 민족사학: 두계 선생과 정홍준 씨와의 대담」(1984), 진단학회(편), 『역사가의 유향』(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359쪽]. 한편 이나바는 이병도에게 청말의 학자 楊守敬의 글을 보내주거나 황해도에서 발견된 銘文博의 소식을 언론보다 먼저 알려 주는 등 다양한 도움을 주었다[李丙燾, 「眞番郡考」, 『史學雜誌』 40-5(1929), 54쪽, 72쪽]. 이에 이병도는 경성에서 간행된 이나바의 환갑기념논총에 글을 보내기도 했다[李丙燾, 「成研經齋與其學術述略」, 稻葉博士還曆記念會(編), 『滿鮮史論叢: 稻葉博士還曆記念』(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8)].

구보고』(16책)를 간행했다.<sup>32</sup> 이병도는 이케우치를 통해 이 『만선지리역사연구보고』를 꾸준히 받아 보았다고 한다.<sup>33</sup> 기자동래설의 부정 또한 일본 내 조선사 연구의 권위자였던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견해와 매우 유사하다.<sup>34</sup>

만주와 조선을 하나의 역사지리적 공간으로 간주하는 ‘만선사(滿鮮史)’는 1914년부터 도쿄제국대학에서 관련 강의가 꾸준히 개설될 정도로 “전전(戰前) 일본의 동양사에서 중요한 학문 분야”였는데,<sup>35</sup> 그 목적이 제국주의적 침략과 연계되어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병도는 전술한 것처럼 「조선사개강」의 단계에서는 아직 독자적인 역사관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가령 이병도는 한사군(漢四郡)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비정한다.

한무제(漢武帝)는 세(勢)를 승(乘)하여 주위의 제족(졸본, 옥저, 예맥)을 위압하고 반도의 북반을 4대 구역에 분(分)하여 구위씨조선국(舊衛氏朝鮮國)[평안, 황해, 경기의 대부(大部)]의 땅을 낙랑군으로 하고 동으로 금(今) 강원도의 대부분을 임둔군, 함경남도를 현도군, 평안북도 금 동가강(修佳江) 유역을 원지명(元地名)에 잉(仍)하여 진번군으로 정하였었다.<sup>36</sup>

이 인용문의 설명을 지도 위에 대략 나타내 본 것이 [그림1]이다. 주목할 것

- 
- 32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하타다 다카시(저), 이기동(역), 『일본인의 한국관』(서울: 일조각, 1983); 桜沢亜伊, 「『滿鮮史觀』の再検討: 『滿鮮歴史地理調査部』と稲葉岩吉を中心として」, 『現代社會文化研究』 39(2007); 박찬홍, 「만선역사지리지조사부와 고대 '만선역사지리' 연구」, 『역사와 담론』 75(2015) 등을 참조.
  - 33 이병도, 앞의 논문(1955), 앞의 책(2012b), 436쪽. 원문에는 그가 받아 본 책이 『滿洲地理歴史研究報告』로 표기되어 있다.
  - 34 今西龍, 「箕子朝鮮伝説考」, 『支那學』 2·10·11(1922).
  - 35 이노우에 나오키(저), 박성현(역), 「고구려사와 만선사」, 『동서인문학』 53(2017), 188~189쪽.
  - 36 이병도, 「조선사개강 (7)」, 《동아일보》, 1923년 10월 5일.



그림1-이병도가 「조선사개강」 단계에서 비정했던 한사군 위치

은 ‘진번군’의 위치다. 여기서 이병도는 진번군의 위치를 낙랑군보다 북쪽에 비정하는 ‘진번군 재복설’을 따랐다. 재복설은 김륜·유득공·정약용 등이 주장했고 안정복이나 박지원도 이를 인용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나카가 처음으로 재복설을 제기했는데, 이는 시라토리야 히구치 다카지로[樋口隆次郎] 등으로 계승되었다. 특히 시라토리는 1912년에 「한의 조선사군강역고」라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듬해에는 『만주역사지리』 제1권에 「한대(漢代)의 조선」이라는 글을 실으면서 재복설의 기반을 다졌다.<sup>37</sup>

한편 재복설과 달리 진번군의 위치를 낙랑군보다 남쪽에 비정하는 ‘진번군 재남설’ 역시 여러 학자가 주장하고 있었다. 이나마는 시라토리가 주재한 만선역사지리조사부에 근무하면서도 1914년에 재복설을 반박하는 글을 발표했다.<sup>38</sup> 이마니시는 1916년 「진번군고」를 발표하여 본격적으로 재남설

37 白鳥庫吉, 「漢の朝鮮四郡疆域考」, 『東洋學報』 2-2(1912); 白鳥庫吉·箭內互, 「漢代之朝鮮」, 『滿洲歷史地理 1』(大連: 南滿州鐵道株式會社, 1913).

38 稻葉君山, 「眞蕃郡の位置」, 『歷史地理』 24-6(1914).

을 전개했으며,<sup>39</sup> 이병도가 “은사”라 불렀던 이치무라 산지로<sup>40</sup>와 이케우치, 그리고 ‘임나’의 연구로 유명한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등도 재남설을 지지했다.<sup>41</sup> 이병도는 훗날 대담을 통해 “일본인들이 우리 고대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한국 사람은 아무 얘기도 못 하니 일종의 의분심”이 생겨서 “1923년”부터 “고대사에 착수”했으며 “고조선 문제, 한사군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이게 바로 역사를 하는 기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하는데,<sup>42</sup> 방금 살펴본 것처럼 적어도 「조선사개강」에는 그러한 고민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시기를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당시의 이병도는 진번군의 위치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만주역사지리』 제1권 등에 실린 시라토리의 견해를 거의 그대로 따를 뿐이었다.

### Ⅲ. 독자적 역사관의 전개

#### 1. 한사군의 연구

그런 이병도에게 전기가 찾아온 것은 1925년이였다. 총독부가 ‘조선사편

39 今西龍, 「眞番郡考」, 『史林』 1-1(1916).

40 李丙燾, 앞의 논문(1929), 50쪽. 이치무라의 고희기념논총에는 이병도의 글도 게재되었다. 李丙燾, 「所謂箕子八條教に就いて」, 市村博士古稀記念東洋史學論叢刊行會(編), 『市村博士古稀記念東洋史學論叢』(東京: 富山房, 1933).

41 당시의 ‘진번군 재복설’과 ‘진번군 재남설’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인성, 앞의 논문(2009b); 이기동, 「이병도 선생의 한국 고대 역사지리 연구와 그 학술사적 위치」, 『진단학보』 116(2012); 윤병모, 「근대 일본인과 이병도의 진번군 인식」, 『한일관계사연구』 83(2024) 등을 참조.

42 이병도·정홍준, 앞의 논문(1984), 360쪽.

찬위원회'를 '조선사편수회'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케우치의 추천을 받아 수사관보(修史官補)로 취직하게 된 것이다.<sup>43</sup> 늑막염까지 앓게 했던 교원의 부담을 벗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마침 1923년에는 학무국 편집과장을 지냈으며 총독부의 역사편찬사업에도 깊이 관여했던 오다 쇼고[小田省悟]를 중심으로 '조선사학회'가 조직되었고, 1926년에는 2년간의 예과 시대를 거친 경성제국대학에 법문학부 및 의학부가 설치되었다.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조선사학 제1강좌와 제2강좌 담임교수에는 각각 이마니시와 오다가 임용되었고,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와 스에마쓰는 강사로 근무했다. 이마니시·오다·나카무라·스에마쓰는 조선사편수회에서든 각각 위원과 수사관 등을 겸직했다. 또한 이나바도 간사 및 수사관으로 참여하면서 이병도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당시 조선사편수회를 이끌었던 것은 도쿄제국대학 출신의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였는데, 그는 자료의 수집과 실증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도쿄제국대학 사료편찬과(史料編纂掛)의 방법론을 식민지조선에 거의 그대로 도입했다. 한편 1930년 5월에는 청구학회(靑丘學會)가 출범하고 제국대학의 《사학잡지》에서 비롯된 역사학 관련 학술잡지의 기본 구성을 적용한 기관지 《청구학총(靑丘學叢)》을 간행했다.<sup>44</sup>

이렇게 전문 학술잡지까지 생겨나면서 부족하나마 역사학 연구를 위한 제반 조직이 정비되었다.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국가 기구(조선사편수회),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대학(경성제대 사학과), 성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학회

43 이병도, 앞의 글(1983), 앞의 책(2012b), 471쪽.

44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장신, 「경성제국대학 사학과의 자장」, 『역사문제연구』 26(2011); 장신, 「근대 일본의 조선사 연구: 통계적 접근」, 『규장각』 61(2022); 윤해동(편), 『제국 일본의 역사학과 '조선』(서울: 소명출판, 2018); 정상우, 앞의 책(2018); 정준영,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조선 연구: 지향으로서의 조선, 지향으로서의 동양』(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심희찬, 「식민사학 재고: 과학 담론과 식민지주의의 절합에 대해」, 『인문학연구』 63(2022) 등을 참조.

(청구학회)라는 세 축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sup>45</sup> 조선사 연구의 중심도 서서히 도쿄에서 정성으로 옮겨 가게 된다.<sup>46</sup> 이병도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역사 연구자로 성장하게 된다. 일본 사학계 중심에서 조선사를 연구했던 전문가들과 접촉하면서 많은 자극을 받게 되고, 자료를 열람하는 데도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sup>47</sup> 이병도는 과거 이광수가 자신을 가리켜 “고린 학자” 스타일로 칭한 것을 떠올리며, 조선사편수회에 “촉탁으로 나가게 되면서부터 춘원이 말한 대로 ‘고린 학자’의 껍질을 쓰기 시작”했다고 회고한다.<sup>48</sup> 비록 이병도는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일인 학자들과 뜻이 맞지 아니하여 퇴직을 간청”했으나, 다행히 “무급촉탁”의 자리를 얻어 사료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 논문을” 쓰게 되었다.<sup>49</sup>

이후 이병도는 비로소 독자적인 견해를 담은 본격적인 역사학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조선사학동호회가 간행한 『조선사학』과 청구학회의 《청구학총》 등에 일본어로 논문을 실었으며, 당대 역사학 잡지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일본의 《사학잡지》에도 글을 실었다. 식민지기에 《사학잡지》에 논문을 게재한 조선인은 이병도가 유일했다. 게다가 시미즈, 쓰다, 이케우

45 정준영, 「식민사관의 차질: 조선사학회와 1920년대 식민사학의 제도화」, 『한국사학사학보』 34(2016), 265~266쪽.

46 하타타 다카시, 앞의 책(1983), 280쪽; 장신, 앞의 논문(2022), 416~417쪽.

47 이병도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일인 학자들과의 접촉과 자극에서 나의 학구적 생활은 본격화되어, 학술적인 논문도 이때서부터 발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이병도, 「나의 회상록」(1971), 이병도, 『두계이병도전집 15』(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c), 399쪽]. “조선사편수회가 조직되고 내가 촉탁의 직임을 맡게 되어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역사 조사연구에 종사하고 있던 이마니시 박사와 이나바 박사 그리고 편수회 고문으로 있던 구로이타 박사 등 제씨와 직접 접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과의 접촉에서 자극되고 계몽된 바 적지 아니 하였다.”[이병도, 앞의 글(1955), 앞의 책(2012b), 435쪽].

48 이병도, 「나의 회상 단편」(1975a), 앞의 책(2012c), 419~420쪽.

49 이병도, 앞의 글(1983), 앞의 책(2012b), 471쪽; 우에야마 유리카, 앞의 논문(2017), 100~102쪽.

치 등의 추천과 조력을 통해 1928년에는 도쿄에서 개최된 사학회 대회 동양사 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으며, 『동양학보』에도 논문을 게재했다. 이병도 본인의 발언에 따르면, 그의 연구논문은 “일본학계에 일종의 썬세이손”을 일으켰다고 한다.<sup>50</sup> 이병도의 이러한 행보는 그의 이름을 식민지조선의 지식계에 널리 알리는 기폭제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기부터 “반역아”<sup>51</sup>라고 불릴 만큼 한사군 등에 관하여 기존의 학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상술한 사학회 대회에서 현도군의 위치를 함경도 방면의 옥저 지방이 아닌 고구려족의 본거지였던 압록강 방면으로 비정했으며,<sup>52</sup> 같은 해 5월과 8월에는 대중교 관련 인사가 주도하던 《한빛》에 「고조선사군강역고」를 2회에 걸쳐 연재했다.<sup>53</sup> 여기서 이병도는 먼저 진번군의 문제를 다루었으나 잡지가 중간되면서 계속될 예정이었던 논문도 중단된다. 미완에 그친 진번군 연구는 1929년 5월 일본의 《사학잡지》에 실린 「진번군고」에서 이어진다. 이 글에서 이병도는 과거 「조선사개강」에서의 서술을 뒤집고 진번군 재남설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나바나 이마니시 등의 재남설을 지지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양씨(楊氏)의 설에 영향을 받아 진번 재마한설(在馬韓說)을 주장하는 일파가 있다. 마한설이라는 이름은 내가 편의상 지은 것이고 실은 충청·전라도 설이다. 이를 다시 상세히 나누면 진번을 충청도 부근으로 보는 사람과 충청도 및 전라북도 부근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전자는 현 조선총독부 수사관인 이나

---

50 이병도, 앞의 글(1955), 앞의 책(2012b), 437쪽.

51 이병도, 앞의 글(1971), 앞의 책(2012c), 399쪽.

52 조인성, 앞의 글(2009b), 11쪽.

53 이병도, 「고조선사군강역고 (1)」, 《한빛》, 1928년 제4·5호; 이병도, 「고조선사군강역고 (2)」, 《한빛》, 1928년 제6호.

바 이와키치씨이고, 후자는 지금 경성대학 교수 문학박사 이마니시 류씨다. 이들의 주장은 이미 학계에 널리 발표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두 사람의 설에 따르기 힘든 이유는 앞서 양씨 설에 대해 논한 바와 같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겠으나 특히 이마니시 박사의 진번관은 더욱 남쪽으로 치우쳐 있기에 따르기 힘들다. 진번의 위치를 북부 조선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에 비정하면 할수록 숙신설(肅愼說)과 마찬가지로 대세를 거스르는 난점이 한층 늘어난다.<sup>54</sup>

이나비는 진번군의 위치를 현재의 충청도 부근으로 비정하고 이마니시는 충청도 및 전라도 부근으로 비정하는데, 재복설이 진번군을 북쪽으로 멀리 밀어낸다면 이들은 반대로 너무 남쪽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위의 “양씨”는 진번군 재남설 중 하나인 “대방설(帶方說)”을 주창한 양수경을 말한다. 그는 자신의 문집인 『회명헌고(晦明軒稿)』에서 『후한서』 등을 바탕으로 소제(昭帝)가 임둔군을 폐지하여 낙랑군과 현도군에 “분속(分屬)”시키고 진번군을 폐지하여 북쪽의 낙랑군에 합쳤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낙랑군의 남부에서 분리·독립된 대방군에 속하는 지역이 진번군의 옛 강역이라고 보았다.<sup>55</sup> 이병도는 진번군을 낙랑군의 남쪽에 비정하는 양수경의 이러한 주장을 “실로 탁견 정론”이라고 평가한다.<sup>56</sup> 다만 양수경은 대방군의 구체적인 위치를 잘못 파악했다. 양수경은 『진서(陳書)』 「백제국전(百濟國傳)」을 인용하지만 실제 『진서』에는 「백제국전」이 없으며, 『일통지(一統志)』 등을 근거로 언급한 내용 역시 “대명(大明)·대청(大清)의 양 통지(統志)”에 그런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sup>57</sup>

54 李丙燾, 앞의 논문(1929), 65~66쪽.

55 위의 논문, 54~56쪽.

56 위의 논문, 56쪽.

57 위의 논문, 57쪽.

만약 양수경의 사료적 근거가 올바르다고 해도 “백제가 처음 대방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는 그의 주장은 성립하지 못한다.<sup>58</sup> 우선 “백제(百濟)는 마한 열국의 하나인 백제(伯濟)가 성장한 나라이며, 대방은 어떤 시기까지는 … 백제와 병존”했기 때문이다.<sup>59</sup> 그리고 무엇보다 1911년부터 이루어진 총독부의 고적조사에 의해 황해도 봉산군(鳳山郡) 문정면(文井面)에서 대방군의 유적이 발굴되었다.<sup>60</sup> 따라서 대방군의 강역을 충청도로 비정하는 것은 오류이며, 당연히 대방군의 전신인 진번군의 위치 또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나바와 이마니시는 양수경의 영향을 받아 진번군의 위치를 충청도, 혹은 전라도 부근으로까지 남하시킨다는 것이다.

앞의 인용문 마지막에 나오는 “속신설”은 진번군 재복설 가운데 하나다. 속신설을 대표하는 것은 김륜·남구만·안정복 등인데 이들은 주로 『무릉서(茂陵書)』에 나오는 진번과 장안(長安)의 거리를 근거로 삼는다. 곧 “진번군치(眞番郡治) 삼현(霄縣)은 장안으로부터 7,640리 떨어져 있다.”는 기사가 그것인데, 이병도는 “근본 재료”가 될 수 없는 『무릉서』의 간략한 기사에 적힌 “이수(里數)”에 집착하는 태도는 “당시의 대세를 너무도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한다.<sup>61</sup> 그가 말하는 ‘근본 재료’는 『사기』 「조선전」인데, 이에 따르면 “진번은 위만 통치 전후의 조선과 지리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그 면적도 그다지 넓지 않았다.<sup>62</sup> 따라서 “진번의 소재지를 요동 동북의 아득히 먼 땅에 비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그 경우 “반도 중부 이남의 삼한 지방”의 크기를 “방가(方可) 4천 리”로 기록한 『위지』 「삼한전」과도 모순이 된다.<sup>63</sup> 속신설과 대방설

58 위의 논문, 57쪽.

59 위의 논문, 57쪽.

60 위의 논문, 58쪽.

61 위의 논문, 43~44쪽.

62 위의 논문, 44~45쪽.

63 위의 논문, 45쪽.

은 각각 진번군의 위치를 낙랑군의 북쪽과 남쪽에 비정한다는 점에서 서로 대립하지만, 이러한 대세와 면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오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병도는 기존의 진번군 재복설(요동설, 숙신설)과 진번군 재남설[진국설(辰國說), 맥국설(狛國說), 대방설, 마한설]을 모두 부정하는 과정에서<sup>64</sup> 안정복·이세구·정약용·김륜·남구만·한백겸, 유득공 등 조선의 지식인은 물론, 이나바·이마니시·이치무라·요시다·나카 등 자신과 친한 일본인 학자 및 스승의 주장까지도 깡그리 비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나의 소견 역시 진번 남방설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나는 우리의 확대된 근대적 의식을 작게 축소하고 당시의 대세를 고려하여 고대 국군(國郡)의 지역을 논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진번의 범위를 그렇게 크게 보고 싶지도 않고, 그 위치를 조선 본국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남방으로 간주하고 싶지도 않다. 가능하면 재래 학자의 관점보다는 조금 작게, 그리고 더 가까운 남방에 비정하고 싶다. 동시에—당시의—조선 본국 강역(즉 훗날의 낙랑)에 대해서도 재래의 학자처럼 그렇게 크게 보고 싶지 않다.<sup>65</sup>

정리하자면 이병도는 진번군 재남설에 따르면서도 이를 충청도나 전라도 방면으로 비정하지 않고, 낙랑군에 더 가까운 남쪽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것이다. “진번과 조선은 지리적으로 가까웠으며 항상 정치적 운명을 함께”했던 점, 그리고 “반도 중부 이남에는 역시 마한 지방을 중심으로

---

64 이는 이병도 자신의 분류이다(위의 논문, 37쪽).

65 위의 논문, 66쪽.

하는 진국(辰國)”이 있었다는 점 등이 그 주된 근거였다.<sup>66</sup> 진국의 동북 방면에는 “임둔국”이 있었으므로 “조선·진변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반도 중부 이북의 서선(西鮮) 지방으로 한정”되는바, “진변의 방위가 조선(낙랑)과 진국(마한)의 사이에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sup>67</sup>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위치는 어디인가? 이병도는 진변군이 낙랑군에 통합된 이후 그 자리에 새로 설치된 대방군의 위치 비정을 통해 진변군의 영역 및 흥망의 과정을 추정한다.

진변군의 영역은 북쪽으로는 자비령 이남 황해도의 대부분과 남쪽으로는 한강 이북 경기도의 일부분을 포함한다고 생각된다. … 진변군치는 한민족(韓民族)과의 교계(交界)에 두어졌고 이는 낙랑군치[조선현(朝鮮縣)] 및 임둔군치[동이현(東隴縣)]에서 떨어진 남방에 위치하는데, 설치 후 채 30년을 넘기지 못한 소제(昭帝) 시원(始元) 5년(82 A.D.)에 삼현 등 남반부는 폐지되어 그 접양지였던 진국에 흡수되었고, 북반부만이 낙랑군에 병합되어 남부도위(南部都尉)를 관할하다가 이후 대방군의 영역이 되었을 것이다.<sup>68</sup>

## 2. 실증사학의 속살

[그림2]는 진변군의 위치에 관한 이병도의 새로운 주장을 지도상에 표기해 본 것이다. 「조선사개강」 연재 당시에 제시했던 [그림1]의 형태와는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한사군 전체의 위치와 크기가 변했는데, 특히 진변군과 현도군의 변화가 가장 크다. 현도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진변군고」 이외에 1930년에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학잡지》에 발표한 두 편의

---

66 위의 논문, 66~67쪽.

67 위의 논문, 67쪽.

68 위의 논문, 73~74쪽.



그림2-이병도의 새로운 진번군 위치 비정

현도군 관련 논문의 내용을 반영했다.<sup>69</sup> 여기서도 이병도는 독특한 주장을 전개하는데, 지면상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군에 비하여 흥망과 연혁이 매우 복잡한 현도군은 “국토를 크게 확장한 불세출의 영웅” “광개토왕 시대에 “고구려국의 완전하고 영구한 소유가” 되었는데, “그 후로 전혀 복치(復置)되지 못하고 단지 봉작(封爵)의 형식적 명칭”으로만 사용되었다.<sup>70</sup> 그렇다면 현도군의 최초 위치는 어디였을까? 이병도는 현도군의 최초 위치에 대한 세 가지 주장, 즉 ‘옥저설’, ‘고구려설’, ‘옥저 및 고구려설’을 모두 비판한다. 우선 ‘고구려설’은 북위(北魏)의 학자 역도원(酈道元)이 주창했는데, 현도군치인 고구려현(遼山)을 “본래의 고구려국”으로 오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기에 “이 설에 따르는 자가 있

69 李丙燾, 「玄菟郡及臨屯郡考」, 《史學雜誌》, 1930年 第41卷 第4号; 李丙燾, 「玄菟郡及臨屯郡考(二)」, 《史學雜誌》, 1930年 第41卷 第5号.

70 李丙燾, 「玄菟郡及臨屯郡考」, 《史學雜誌》, 1930年 第41卷 第4号, 78쪽.

음을 거의 듣지 못했다.”고 한다.<sup>71</sup>

이와 달리 ‘옥저설’은 지금도 많은 학자가 따르고 있으며, ‘옥저 및 고구려 설’은 양수경이 제창한 이래 여러 학자가 그에 찬동하는 중이다. 이들은 “현도의 중심지를 옥저에 두는 점에서 완전히 똑같다.”<sup>72</sup> 그 주된 근거는 “옥저성(沃沮城)을 현도군으로 삼았다는 『위지』의 기사인데, “한사군 설치 이래 후한 광무제 건무 6년(30 A.D.) 무렵까지 하나의 현”에 불과했던 옥저성을 현도군으로 삼았다는 것은 의심스럽다.<sup>73</sup> 다른 세 개의 군이 특정 부족 위에 설치되었음을 고려하면 옥저 역시 그만큼의 “대부족(大部族)”이었어야 할 텐데, 『사기』나 『한서』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sup>74</sup> 또한 현도군이 옥저와 고구려에 걸쳐 있었다는 주장은 그 두 지역 사이에 반도의 척추인 백두산의 “남지(南支)”가 자리 잡고 있음을 생각하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sup>75</sup>

나아가 나카·시라토리·이마니시·이와바 그리고 나이토 고난[內藤湖南] 등 일본인 학자들의 주장을 길게 비판한 이병도는 결론적으로 현도군이 예맥의 땅에 설치되었을 것이며 그 중심지는 고구려 지방이었으리라 추정한다.<sup>76</sup> 그리고 그 근거로서 ‘음운학’적 해석을 제시한다.

나는 다른 삼군(三郡)의 이름이 대개 토속의 명칭에 유래하는 것처럼 현도 역시 토어(土語)에 기인하는 아명(雅名)이며, 실은 훗날 고구려국의 수도였던 ‘환도(丸都)’와 동의동음(同義同音)이라고 생각한다. … 특히 주의할 점은 원래 조선에 서는 보통 도[菟]자를 토(to)로 소리 내지만 유독 현도의 경우에는 도(菟)를

---

71 위의 글, 79~80쪽.

72 위의 글, 80쪽.

73 위의 글, 81쪽.

74 위의 글, 82쪽.

75 위의 글, 83쪽.

76 위의 글, 99쪽.

도(do)라고 소리 낸다. 나는 이전에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를 이상하게 여겼으나, 이것을 환도의 옛 음역(音譯)으로 생각하자 처음으로 그 까닭이 이해되었다.<sup>77</sup>

현도군의 초기 위치를 고구려 지방에 비정하는 논의의 주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현도와 환도의 발음적 유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과거 「조선사개강」의 단계에서도 그가 비슷한 방법론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전술했듯이 이병도는 1923년에 「조선사개강」을 연재할 때는 진변군 재복설에 따르고 있었는데, 그 근거 중 하나가 ‘진번’과 ‘졸본’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이었다.<sup>78</sup> 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 1929년의 「진변군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전에 진번, 즉 졸본설(고구려설)을 주창하여 재복설을 성립시키고자 노력해 보았는데, 도저히 상술한 여러 난관을 타파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재복설을 버리고 재남설로 기울게 되었는데, 나의 진번관은 이미 열거한 종래의 남방론자와는 다소 그 내용이 다르다.<sup>79</sup>

그의 “진번관”이 “종래의 남방론자”와 어떻게 다른지는 이미 살펴보았다. 그것보다 이병도가 1923년에는 ‘진번’과 ‘졸본’의 발음상 유사성을 근거로 진변군을 고구려 지방에 비정했다가, 이번에는 ‘현도’와 ‘환도’의 발음상 유사성을 근거로 현도군을 고구려 지방에 비정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물론 연

---

77 위의 글, 101쪽.

78 즉 “졸본부여의 지명은 혹은 진번이라고 함. 진번이나 졸본이나 음이 相似”하다는 것이다. 이병도, 「조선사개강 (7)」, 《동아일보》, 1923년 10월 5일.

79 李丙燾, 앞의 논문(1929), 48~49쪽.

구의 축적에 따라 기존의 주장을 변경하는 일은 전혀 드물지 않으며, 일부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이병도 실증사학의 수준이 실은 매우 저급했음을 지적하기 위해 위의 문장을 인용한 것도 아니다.<sup>80</sup> 여기에 실증사학의 어떤 속살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병도의 이러한 주장은 “역사는 과학”<sup>81</sup>임을 천명하는 실증사학이 사료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석 이전에 어떤 영감이나 직관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진번, 특히 현도의 위치를 바로 잡는 게 가장 머리가 아팠다. 종래의 학자는 진번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도 못하고 더구나 현도는 애당초 『위지』에 적힌 기사를 의심조차 하지도 않았다. 함경도 방면의 옥저가 현도라고 『위지』에 쓰여 있었으므로 그대로 이것을 믿었다.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 현도는 옥저가 아닌 협의의 예맥인 고구려라고 결론짓게 되었다.<sup>82</sup>

이병도는 한사군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기존의 연구를 뛰어넘는 새로운 학설을 주장할 것인가? 그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근거”를 직관에 가까운 방법에서 찾았다. 무질서한 사료의 파편들을 하나의 일관된 논리 속에 재구성하는 작업은 이러한 직관을 얻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선생님께서 과제로 삼아 주신 것은 「삼한문제의 신고찰」을 비롯하여 주로 역사지리에 대한 문제들이었다. 이때 나는 선생님이 발표하신 논문들의 내용에

---

80 이도학, 「이병도 한국고대사 연구의 ‘실증성’ 검증」, 『백산학보』 98(2014); 임찬경, 「이병도 한사군 인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학연구』 18(2014) 등을 참조.

81 이병도, 『조선사대관』(서울: 동지사, 1948), 1쪽.

82 이병도, 「서재에서의 잡상」(1972), 앞의 책(2012c), 256쪽.

대하여 여러 가지로 여쭙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그것은 저 유명한 ‘현도군 환도설’에 대한 것인데 이 문제를 놓고 선생님은 많은 심사숙고를 거듭하였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하루는 뒷간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었노라고 얼굴에 웃음을 띠우시면서 그 내력을 들려주시었다.<sup>83</sup>

이 인용문은 이병도를 학문상 “은사”이자 인생의 “은인”으로 여기는 윤무병이 그에 대해 남긴 글의 일부다.<sup>84</sup> 이것은 “재미있는 일화” 정도에 그치고 마는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에는 실증사학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암시가 숨겨져 있다. 이병도는 자신의 역사연구가 과학적인 실증에 기반한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른바 ‘음운학’이나 ‘비교언어학’의 방법론을 채택한 것 역시 과학적 역사연구의 일환이었다.<sup>85</sup> 그러나 실증사학이 역사 연구의 방법론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바깥의 영역에 존재하는 직관과 영감을 획득하는 경험이 우선되어야 한다.<sup>86</sup> 실증사학은 그 자체의 방법론만으로는 성립하지 못하는 것이다. ‘진번=졸번’, ‘현도=환도’ 같은 직관이야말로 이병도의 실증사학을 추동한 원동력이었다. 이는 당연히 이병도만의 특징은 아니

83 윤무병, 「두계선생과 사적조사」, 진단학회(편), 앞의 책(2012), 184~185쪽.

84 위의 논문, 183쪽.

85 음운학이나 비교언어학의 성과를 역사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시라토리 등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종종 채택한 방법론이었으며, 이는 신채호나 최남선에게도 중요한 근거로 기능했다. 김병문, 「신채호의 고대사 기술에 사용된 언어학적 방법론 검토: 『조선사연구초』와 『조선상고사』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9(2020a); 김병문,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을 통해 본 고대사 만들기와 역사비교 언어학의 관계」, 『대동문화연구』 110(2020b).

86 마찬가지로 이병도는 충주고구려비 건립 연대에 대해 꿈속에 나타난 建興이라는 두 글자를 통해 연호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한다. 이도학, 앞의 논문(2014), 130~131쪽.

다. 역사학자 전반이 경험하는 일이라 해야 한다.<sup>87</sup> 역사학자는 때로는 불현 듯 떠오르는 영감과, 때로는 무언가의 계시와 결합한다. 이병도 역시 고뇌의 끝에서 자신도 모르게 실증사학의 어떤 공백의 지점에 도달하고 만 것이다.

#### IV. 좌절과 전환

---

이병도가 ‘진번=졸번’, ‘현도=환도’ 같은 무리한 논리를 전개하면서까지 한국 고대사 연구를 추진한 이유는 아마 피식민자로서 제국의 아카데미즘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이 제시하는 한국 고대사의 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논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이병도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부단히 분투했다. 실제로 그는 한사군 연구로 일본 학자에게 “선배에 대한 반역아”라는 말까지 들었고,<sup>88</sup> 와다 기요시[和田清] 같은 인물은 현도군에 관한 이병도의 연구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논지를 바꾸기도 했다.<sup>89</sup>

앞서 본 [그림1]에서 [그림2]로의 한사군 위치의 변화는 아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낳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낙랑군의 영역 축소, 둘째, 한반도 남부에 위치하는 ‘진국’의 영향력 강조, 셋째, 낙랑군과 일본의 직접 교통이라는 일본인 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먼저 진번군의 위치가 황해도와 한강 이북 경기도로 비정되면서 「조선사개강」에서 “평안, 황해, 경기의 대

---

87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과 가치 사이를 직관 혹은 낙관으로 메우는 것은 근대 역사학의 속성”이라는 지적은 대단히 중요하다. 홍종욱, 앞의 논문(2019), 295쪽.

88 이병도, 앞의 글(1973), 이병도, 앞의 책(2012b), 432쪽.

89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1976), 이병도, 『두계이병도전집 3』(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a), 183쪽.

부”로 간주되었던 낙랑군의 영역이 평안도 일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병도가 이처럼 독자적인 진변군 재남설을 통해 낙랑군의 영역을 축소하는 것은 ‘진국=마한’이라는 본인의 독특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진국이 진한(辰韓)으로 이어졌다는 일반적인 학설을 부정하고, 진국을 마한으로 이어진 삼한의 총 지배 세력으로 간주한다. 낙랑군을 축소하는 한편, 진변군의 일부를 흡수한 남쪽의 거대한 정치연합체인 진국을 강조할 수 있는 내러티브의 구축이야말로 이병도를 그토록 고뇌하게 만든 진짜 원인이라 보인다. 「진변군고」에서 이병도는 다음과 같이 논했다.

그렇다면 진국은 후한서에 따라 진왕(辰王)이 군림한 마한을 중심으로 하는 전(全) 삼한의 옛 이름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 즉 진국의 주체는 진한도 아니고 변한도 아닌 마한이었으며, 삼한시대에도 마한에는 여전히 진왕이 있어서 삼한의 모든 땅을 지배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진국은 ‘진변진국(眞番辰國)’ 혹은 ‘진변방진국(眞番旁辰國)’이라 불릴 정도로 고대 지나인에게 알려졌던 저명한 나라였던 만큼 그것이 반도의 동남 구석에 벽재(僻在)한, 게다가 마한의 지배를 받았던 ‘진한’만을 가리키는 구칭(舊稱)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오히려 반도 중부 이남의 서해안 지방에서 정치상·경제상, 그리고 영토상 패권을 쥐었던 마한 또는 이를 중심으로 칭해지는 삼한의 옛 범칭(汎稱)으로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sup>90</sup>

이병도는 이와 같은 진국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학설을 이후 《진단학보》에 7회에 걸쳐 게재한 「삼한문제의 신고찰」에서 더욱 상세하게 소개한다. 『위략』에는 위만조선 말기 조선상(朝鮮相)의 관직을 지냈던 역계경(歷谿卿)이라

90 李丙燾, 앞의 논문(1929), 61~62쪽.

는 인물이 진국으로 망명했다는 기사, 그리고 진한우거수(辰韓右渠師) 염사치(廉斯鎰)라는 인물이 진한을 떠나 낙랑에 육로로 귀화했다가 나포된 한인(漢人)의 귀국을 위해 다시 진한으로 큰 배를 타고 돌아갔다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병도는 역계경이 망명한 ‘진국’과 염사치가 등졌다는 ‘진한’을 같은 진국으로 추정하고, 진한은 진국의 일부분이지 진국이 진한이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염사치의 기사에는 뱃길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만약 진한이 기존의 주장처럼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 지방이라면 배로 갔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진한은 반드시 배로 왕래하기 편한 한강 이남 서해안 지방이 되어야만 한다. 그 후보로 직산, 공주, 부여, 익산을 드는 이병도는 직산이 백제 초기의 수도 위례성이었다는 전설에 주목한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전설에 불과하지만, 백제가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직산 일대에 어떤 유구한 정치체가 존재했음을 시사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한강 이남에 위치하면서 오랜 역사를 가지는 정치체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진국뿐이다. 직산에 도하리(都下里), 안궁리(安宮理), 평궁리(坪宮理), 신궁리(新宮里)처럼 그 이름에 ‘도(都)’나 ‘궁(宮)’자가 포함된 마을이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나아가 이병도는 염사치는 순전한 사람의 이름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치는 관명, 염사는 읍락의 이름이리라고 추측하고 직산 서쪽 해미(海美)의 염솔(廉率), 곧 오늘날의 서천군 정미면을 발음의 유사함을 근거로 직산의 중심지였다고 비정한다.<sup>91</sup>

이병도의 ‘진국=마한’설은 진국에 대한 그의 “강한 집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며, 이후 학계에서도 새로운 해석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sup>92</sup> 그런데 이병도는 어째서 진국에 ‘집착’한 것일까? 한반도의 남부에 위

91 이병도, 「삼한문제의 신고찰 (1): 진국급삼한고」, 《진단학보》1(1934년 11월호), 8~21쪽.

92 이기동, 앞의 논문(2012), 312~315쪽.

치했었다는 진국의 세력과 영역을 최대한 강조하는 일은 낙랑군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일본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령 “식민사학자들은” “중국본토에서 낙랑군으로,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문화전파에 있어서 조선인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본인이 도리어 조선인들에 비해 선진적이고 우월한 문화를 가질 수 있는 서사구조”를 창안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한인(韓人) 집단은 양쪽 점에 위치한 중국과 일본에 의해 교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었다.<sup>93</sup> 다시 말해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낙랑군에서 일본으로 직접 중국의 문화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고대 일본은 상당한 수준의 문명에 이를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러한 문화 전달 과정에서 “한인(韓人)”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한정했던 것이다. “조선의 남단에 당시 일본의 영토”가 있었음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로 보았던 이나바는 한사군을 매개로 하는 중국과 일본의 교통에서 그 원동력을 찾았다.<sup>94</sup> 즉, 일본은 중국의 문화를 일찍부터 받아들여 강대한 정권을 구축했기에 “조선의 남단”도 지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나바는 여기서 더욱 나아가 낙랑군이 “저 먼 서역의 문화까지도 담지” 했었다고 주장한다.<sup>95</sup>

그렇다면 진번군의 일부까지도 흡수할 정도로 커다란 세력을 떨쳤던 진국이라는 이병도의 구상은 식민지주의 역사학에 대한 강력한 안티테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삼국지』 「위서동이전」에 따르면, 겨우 “변진 20여 개국 중의 12국”을 지배했다는 진국이 어떻게 삼한 전체를 다스렸다는 것인가?<sup>96</sup>

93 정준영, 「이마니시 류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대사에서 종속성 발견하기」, 『사회와역사』 115(2017), 181쪽.

94 정상우, 「한반도를 매개로 대륙과 일본을 연결시키기: 임나일본부, 낙랑군에 대한 이나바 이와키치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105(2024), 168-177쪽.

95 위의 논문, 184-187쪽.

96 이병도, 앞의 글(1934), 25쪽.

“12국 이외의 타(他) 변진 제국은 이때 진왕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모양”이며, “엄밀히 말할 때는 ‘진왕삼한지지(盡王三韓之地)’라고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sup>97</sup> “그러나 오인에게는 이러한 상상이 허용된다.”는 것이 이병도의 논리였다.<sup>98</sup> 저 옛날 “진국시대에는 변진 20개국도 저 마한 50여 국(其中)에는 진한도 포함과 한가지 진왕의 통령하(統領下)에” 있었다고 한다면 “삼한을 다 고지진국(古之辰國)이라고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다.<sup>99</sup>

이병도는 어째서 이렇게 근거 없는 추측에 상상까지 더해 가며 진국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일까? 일본인 연구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제국의 학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가 1934년에 설립된 진단학회가 『진단학보』를 간행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일본의 잡지에 논문을 신지 않았으며 일본어로 글을 쓰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그 답이 되지 모르겠다.<sup>100</sup>

주지하듯이 “진단학회 회원들”은 “대부분 일본·국내·해외의 대학 출신에서 근대 학문의 수련을 통과한 엘리트이자 근대적 논문쓰기가 가능한 존재”였으며 “일본 제국의 아카데미즘과 경쟁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연구 성과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sup>101</sup> 이병도를 비롯한 진단학회의 핵심 인물들은 “제국의 수도 도쿄에서 간행되는 본격적인 학술지와 겨룰 수 있는 한글로 된, 한국학자들의 학술지”를 지향했다.<sup>102</sup>

그리고 이 시점부터 이병도는 일본인 학자들과의 관계보다는 식민지 엘리

97 위의 논문, 25쪽.

98 위의 논문, 25쪽.

99 위의 논문, 25쪽.

100 다만 1938년의 이나바 환갑기념논총에는 한문으로 지은 글을 보냈다. “차마 우리말 논문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일본어 글쓰기 회피가 그저 우연이 아닌 의식적인 실천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홍종욱, 앞의 논문(2019), 305쪽.

101 정병준, 「식민지 관제 역사학과 근대 학문으로서의 한국역사학의 태동: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10(2016), 139쪽.

102 위의 논문, 141쪽.

트들의 내부적 결속을 중시했으며, 소위 “썬세이썬”을 일으켰다는 자신의 학설을 제국 본국에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는 자부심의 발로일 수도 있으나, 어쩌면 자신의 분투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음을 깨달은 결과일 수도 있다. 제국 본국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은 역사학자였지만, 이병도에게 주어진 선택은 많지 않았다. 가령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는 이병도가 일본의 『동양학보』에 「권양촌의 입학도설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자 안확을 통하여 “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왜 유학에 손을” 대느냐며 난지시 압력을 넣었다.<sup>103</sup> 일본인에게 원고 청탁을 받고 삼한에 대한 글을 썼더니 이마니시 류의 학설에 반대하는 그의 주장을 실어서는 안 된다는 굴욕적인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sup>104</sup>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조선사학 제1강좌를 맡았던 이마니시가 1932년에 사망하고, 같은 해 제2강좌를 맡았던 오다가 정년 퇴직하면서 갑자기 큰 공백이 두 자리나 발생했지만, 이병도에게 주어진 자리는 없었다. 그 자리는 모두 제국대학 출신의 일본인들이 가져갔다.<sup>105</sup>

1920년대까지 일본의 핵심적인 역사 연구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논문도 실었던 거의 유일한 조선인이었던 그는 이제 진단학회로 방향을 틀었다. 조선인들의 학술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한의 군현이 설치된 이후 … 한인(漢人)과의 접촉·교섭이 많아지고 그 불순한 영향으로 조선 고래의 풍습은 점차” 열어졌다는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 이른바 “8조의 금(禁)”에 주목하고 이를 기자가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 “조선 본래의 습관법인 동시에 동이민족, 더 넓게는 인류 세계 일반에 공통”되는 “보편성”을 지닌 “만민법의 하나”로 규정하는 이병도의 주장이 지닌 급진성도 더는 제국의 학계에서 통용

103 이병도, 앞의 글(1983), 앞의 책(2012b), 472쪽.

104 위의 글, 472쪽.

105 장신, 앞의 논문(2011), 53~55쪽.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sup>106</sup>

## V. 맺음말

---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병도는 다양한 직관을 토대로 제국 일본과 그 아카데미즘의 수준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흥미로운 주장들을 내놓았다. 그의 역사학을 식민사학의 흡수, 혹은 단순한 실증사학의 선구로서 일면적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병도는 새로운 한국 고대사 내러티브의 구축을 위해 일본에서 배운 실증사학의 방법론을 극단까지 밀고 나갔다. 그의 고뇌는 “뒷간”에서도 이어졌고, 과거 조선의 지식인들과 당대 일본의 학자들을 빠짐없이 비판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직관과 영감이라는 실증사학의 임계점을 드러냈다. 다만 역사학자로서의 그의 분투는 도리어 일본어 글쓰기의 거부와 진단학회로 귀결되었다. 이는 식민지 엘리트의 사회적 임계이기도 했다.

그리고 해방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이병도는 1951년 백낙준·최남선 등이 심사를 맡은 학위논문이 서울대에서 통과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첫 번째 문학박사가 되었다.<sup>107</sup>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고 이른바 해방조국의 역사학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오른 그가 이후 식민지 시절처럼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병도는 예전처럼 실증사학의 임계점에서 사유를 전개하면서 제국의 학계와 다투지 않았다. 실증사학을 추동

---

106 李丙燾, 앞의 논문(1933), 1189쪽, 1200쪽.

107 「최초의 '문학박사' 서울대학서 이·김 양 교수에 수여」, 《자유신문》, 1951년 12월 4일. 참고로 이병도와 함께 학위를 받은 다른 한 명은 김두현이다. 이 자료는 후쿠오카대학 류충희 교수의 후의로 열람할 수 있었다. 이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하는 “사료와 이념 사이 간극”<sup>108</sup>을 이제는 민족과 국가로 간단히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병도는 가령 1948년에 간행한 『조선사대관』에서 “전일 나의 연구한 바로는 소위 기자조선은 토착조선인의 건설한 나라로, 한씨조선(韓氏朝鮮)이란 결론을 얻게 되었다. … 이 한씨왕조의 최성기(最盛期)는 중국의 전국시대에 당(當)하고 당시 조선은 지금 대동(大同) 유역을 근거로 하여 그 영토가 서(西)으로 요동 지방에까지 뻗었었다(즉 요하 유역에까지)”라고 한다.<sup>109</sup> 다시 말해 “토착조선인”의 나라가 중국의 “요동 지방”까지 다스렸다는 것이다.

또한 “위만은 사기(사마천 찬)에 연인(燕人)이라 하였으나 그것은 국적상으로 말한 바일 것이다. 그가 조선에 입국할 때에 ‘추결(椎結), 만이복(蠻夷服)’(상투를 쌓고 조선옷을 입었다는 것)하고 왔다는 사기의 기사든지 또 한(漢)에서 위만조선을 만이의 나라로 대우한 것이라든지 패수(溟水) 이북의 연령(燕領)은 본시 한씨조선의 영토였던 것을 종합하여 보면, 위만은 실상 조선인계통의 자손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고 주장한다.<sup>110</sup> 이른바 고조선의 모든 역사를 조선인의 민족사로 포섭하는 것이다. 한나라가 침공하여 위만조선을 멸한 사실에서는 “강렬”한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읽어 낸다.

조선이 조그마한 세력을 가지고 약 1년간이나 한의 대공세에 완강히 저항한 것은 한으로서의 예상외의 일이었지만 그만큼 조선인의 민족의식은 강렬하였던 것이다.<sup>111</sup>

108 홍종욱, 앞의 논문(2009), 317쪽.

109 이병도, 앞의 책(1948), 26쪽.

110 위의 책, 28쪽.

111 위의 책, 30쪽.

이러한 고대사 인식은 식민지기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었다. 다만 그 뼈대를 이루는 연구 성과는 모두 과거의 것 그대로였다. 한사군에 관하여 이병도는 진번군의 위치를 “자비령 이남 한강 이북”에 비정하는 기존의 재남설을 유지했다.<sup>112</sup> 또한 “당시 한의 신세력은 한강 이북의 북조선에만 한하고 그 이남의 진(辰)이라든지 원북(遠北)의 부여라든지 또 동북의 숙신에는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강조한다.<sup>113</sup> “진왕은 목[일작월(一作月)]지국[금(今) 직산]의 군장으로서 그 세력이 가장 크고 주위의 다른 군장들을 지배하고 다른 군장들은 진왕을 맹주로 받들어 한 부족연맹사회를 구성”했으며 “더 말하면 진왕은 주위의 제소국을 호령하는 맹주적 자격과 세력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있다.<sup>114</sup>

고녀의 산물이었던 식민지기의 연구 성과는 이처럼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간단히 결합했다. “현도 본주민(本住民)의 반란” 역시 “한군현 내의 우리 민족으로 한인의 지배에 대하여 일으킨 최초의 민족적 투쟁”으로 재해석되었다.<sup>115</sup> 그리고 이병도는 이러한 구상을 이후로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우리 민족의 위대성과 저력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스스로 말해 주고 있다. 원래 사마천의 『사기』에는 위만을 연나라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나의 연구로는 위만은 요동에 거주했던 조선인 자손이었다. 위만조선은 조그만 나라였는데 한무제의 대공세를 맞이해서 서전(緒戰)에서 적의 수륙군을 분쇄한 것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끝까지 버텨 약 1년간을 한무제의 대군과 싸운 것은 우리 민족의 저력

---

112 위의 책, 34쪽.

113 위의 책, 35쪽.

114 위의 책, 46~47쪽.

115 위의 책, 36~37쪽.

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16</sup>

식민사학에 대한 욕망과 위화감이 뒤섞인 상태에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실증성이 부족한 비약과 억지를 내세웠던 과거 이병도의 역사학은 오히려 날카로움과 흥미로운 전복의 계기를 내장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에는 새로운 주장은 거의 없고 그 대신 국가와 민족이 전면에 부상할 뿐이었다. 뒷간 혹은 꿈속에서의 암시나 계시가 더는 그를 찾아오지 않았던 것일까?

마지막으로 이병도가 이러한 한국사의 의미를 남한의 정치체제에만 국한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우리의 목전에는 여러 가지 부조리와 갈등, 모순이 얽히고설킨다.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 보다 나은 세계, 보다 훌륭한 세상으로 승화하려고 우리 인간들은 노력하고 있다. 이 자유민주주의와 정반대되는 공산주의자들은 역사의 발전법칙에 역류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역류에는 반드시 한계성이 있으므로 차차 변질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구호로는 인민민주주의니 하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인민을 혹사하는 공산독재체제에 불과하다.<sup>117</sup>

여기서 이병도의 역사학은 냉전체제와 국가에 복무하는 학문의 성격을 띠게 된다.

남북의 분열이 결국 남한엔 남한대로의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 공산

---

116 이병도,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1982), 앞의 책(2012b), 412쪽.

117 위의 글, 418~419쪽.

집단에는 소련 공산주의자에 의해 괴뢰정권이 세워지고 말았다. 그래서 6.25 동란이란 동족상잔의 참극을 빚었지만, 그 책임과 죄악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sup>118</sup>

그의 실증사학을 가능하게 했던 직관과 영감은 언제나 국가와 민족 앞에 멈추어 섰다. 이병도는 “5.16 군사혁명”을 “역사상의 다른 어떤 혁명적 사실의 그것보다 높이 평가하고 또한 그 앞길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게” 된다면 “조국의 위기를 백척간두에서 구출”한 점, “부패와 구악을 소제”한 점,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진작”한 점을 강조한다.<sup>119</sup> 물론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이병도 역시 일개 역사학자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역사에 대한 기발한 상상력 역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또한 이병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병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대한 사학사적 과제로 남겨져 있다.

---

118 이병도, 『광복 30년의 감회』(1975b), 앞의 책(2012c), 38쪽.

119 이병도, 『5·16 군사혁명의 역사적 의의』(1961), 위의 책, 142~143쪽.

## 참고문헌

### 1. 논저

- 김병문, 「신채호의 고대사 기술에 사용된 언어학적 방법론 검토: 『조선사연구초』와 『조선상고사』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9, 2020a, 197~206쪽.
- 김병문, 「최남선의 ‘불합문화론’을 통해 본 고대사 만들기와 역사비교 언어학의 관계」, 『대동문화연구』 110, 2020b, 329~358쪽.
- 박준형,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공간 재편과 만철조사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 박찬홍, 「만선역사지리조사부와 고대 ‘만선역사지리’ 연구」, 『역사와 담론』 75, 2015, 131~177쪽.
- 송호정, 「일제 강점기 이병도의 고조선사 연구」, 『선사와 고대』 65, 2021, 25~54쪽.
- 심희찬, 「일본 비틀기: 최남선과 일본의 역사학」, 『사이』 24, 2018, 43~77쪽.
- 심희찬, 「식민사학 재고: 과학 담론과 식민지주의의 절합에 대해」, 『인문학연구』 63, 2022, 409~448쪽.
- 우에야마 유리카, 「이병도의 한국사 연구와 교육: 1915-1954년 활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윤무병, 「두계선생과 사적조사」, 진단학회(편), 『역사가의 유향』,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 윤병모, 「근대 일본인과 이병도의 진번군 인식」, 『한일관계사연구』 83, 2024, 251~282쪽.
- 윤해동(편), 『제국 일본의 역사학과 ‘조선’』, 서울: 소명출판, 2018.
- 이기동, 「이병도 선생의 한국 고대 역사지리 연구와 그 학술사적 위치」, 『진단학보』 116, 2012, 299~318쪽.
- 이노우에 나오키(저), 박성현(역), 「고구려사와 만선사」, 『동서인문학』 53, 2017, 167~207쪽.
- 이도학, 「이병도 한국고대사 연구의 ‘실증성’ 검증」, 『백산학보』 98, 2014, 103~166쪽.
- 이병도, 『조선사대관』, 서울: 동지사, 1948.
-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1976), 이병도, 『두계이병도전집 3』,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a.
- 이병도, 「나의 연구생활의 회고」(1955), 이병도, 『두계이병도전집 14』,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b.
- 이병도, 「나는 왜 사학자가 되었나」(1973), 이병도, 『두계이병도전집 14』, 파주: 한국학술

- 정보, 2012b.
- 이병도,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1982), 이병도, 『두계이병도전집 14』,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b.
- 이병도, 「나의 회고록」(1983), 이병도, 『두계이병도전집 14』,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b.
- 이병도, 「5·16 군사혁명의 역사적 의의」(1961), 이병도, 『두계이병도전집 15』,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c.
- 이병도, 「나의 회상록」(1971), 이병도, 『두계이병도전집 15』,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c.
- 이병도, 「서재에서의 잡상」(1972), 이병도, 『두계이병도전집 15』,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c.
- 이병도, 「나의 회상 단편」(1975a), 이병도, 『두계이병도전집 15』,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c.
- 이병도, 「광복 30년의 감회」(1975b), 이병도, 『두계이병도전집 15』,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c.
- 이병도·정홍준, 「실증사학과 민족사학: 두계 선생과 정홍준 씨와의 대담」(1984), 진단학회(편), 『역사가의 유향』,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 임찬경, 「이병도 한사군 인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학연구』 18, 2014, 203~263쪽.
- 장신, 「경성제국대학 사학과와 자장」, 『역사문제연구』 26, 2011, 45~83쪽.
- 장신, 「근대 일본의 조선사 연구: 통계적 접근」, 『규장각』 61, 2022, 405~428쪽.
- 정병준, 「식민지 관제 역사학과 근대 학문으로서의 한국역사학의 태동: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10, 2016, 105~162쪽.
- 정상우, 「한반도를 매개로 대륙과 일본을 연결시키기: 임나일본부, 낙랑군에 대한 이나바 이와키치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105, 2024, 405~428쪽.
- 정상우,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과 조선사편수회』, 서울: 아연출판부, 2018.
- 정준영, 「식민사관의 차질: 조선사학회와 1920년대 식민사학의 제도화」, 『한국사학사학보』 34, 2016, 235~270쪽.
- 정준영, 「이마니시 류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대사에서 종속성 발견하기」, 『사회와역사』 115, 2017, 163~196쪽.
- 정준영,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조선 연구: 지양으로서의 조선, 지향으로서의 동양』,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 조인성, 「이병도의 한국고대사연구와 식민주의사학의 문제: 《한국고대사연구》를 중심으로

- 로, 『한국사연구』 144, 2009a, 285~303쪽.
- 조인성, 「이병도의 한국고대사연구: 한사군·삼한의 역사지리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55, 2009b, 5~34쪽.
- 조인성, 「이병도의 『조선사개강』: 1920년대 초반 문화사학의 일례」, 『백산학보』 98, 2014, 41~65쪽.
- 하타다 다카시(저), 이기동(역), 『일본인의 한국관』, 서울: 일조각, 1983.
- 홍종욱, 「실증사학의 ‘이념’: 식민지 조선에 온 역사주의」, 『인문논총』 76-3, 2019, 287~328쪽.
- 今西龍, 「眞蕃郡考」, 『史林』 1-1, 1916.
- 今西龍, 「箕子朝鮮伝説考」, 『支那學』 2-10·11, 1922.
- 稻葉君山, 「眞蕃郡の位置」, 『歴史地理』 24-6, 1914.
- 白鳥庫吉, 「漢の朝鮮四郡疆域考」, 『東洋學報』 2-2, 1912.
- 白鳥庫吉, 「朝鮮語とUral-Altai語との比較研究」, 『東洋學報』 5-1(1915): 『白鳥庫吉全集 3』, 東京: 岩波書店, 1970.
- 白鳥庫吉·箭内互, 「漢代の朝鮮」, 『滿洲歴史地理 1』, 大連: 南滿州鉄道株式會社, 1913.
- 桜沢亜伊, 「滿鮮史觀の再検討: 『滿鮮歴史地理調査部』と稻葉岩吉を中心として」, 『現代社會文化研究』 39, 2007, 19~30쪽.
- 李丙燾, 「所謂箕子八條教に就いて」, 市村博士古稀記念東洋史學論叢刊行會(編), 『市村博士古稀記念東洋史學論叢』, 東京: 富山房, 1933.
- 李丙燾, 「成研經齋與其學術述略」, 稻葉博士還曆記念會(編), 『滿鮮史論叢: 稻葉博士還曆記念』,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8.

## 2. 기타

- 이병도, 「고조선사군강역고 (1)」, 《한빛》, 1928년 제4·5호.
- 이병도, 「고조선사군강역고 (2)」, 《한빛》, 1928년 제6호.
- 이병도, 「삼한문제의 신고찰 (1): 진국급삼한고」, 《진단학보》 1, 1934년 4월호, 8~21쪽.
- 이병도, 「조선사개강 (1)」, 《동아일보》, 1923년 9월 28일.
- 이병도, 「조선사개강 (2)」, 《동아일보》, 1923년 9월 29일.
- 이병도, 「조선사개강 (4)」, 《동아일보》, 1923년 10월 2일.
- 이병도, 「조선사개강 (6)」, 《동아일보》, 1923년 10월 4일.
- 이병도, 「조선사개강 (7)」, 《동아일보》, 1923년 10월 5일.

「최초의 ‘문학박사’ 서울대학서 이·김 양 교수에 수여」, 《자유신문》, 1951년 12월 4일.  
那珂通世, 「貉人考」, 《史學雜誌》, 1894年 第24卷 第5·6号.  
李丙燾, 「眞番郡考」, 《史學雜誌》, 129年 第40卷 第5号.  
李丙燾, 「玄菟郡及臨屯郡考」, 《史學雜誌》, 1930年 第41卷 第4号.  
李丙燾, 「玄菟郡及臨屯郡考 (二)」, 《史學雜誌》, 1930年 第41卷 第5号.

## 국문초록

이 글은 식민사학의 계승자와 실증사학의 선구자라는 양극단의 평가를 동시에 받는 이병도의 식민지기 한국 고대사 연구를 살펴보고, 사학사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기해 보려는 것이다. 이병도는 일본의 역사학자들과 다른 프레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제국 본국의 역사학계에도 뒤지지 않는 연구 성과를 산출해 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실증사학의 방법론을 극단까지 밀고 나갔으며, 영감과 직관이라는 비실증적 영역에 도달했다. 이병도는 와세다대학에서 역사학의 기초를 다졌으며 이후 식민지 조선에 귀국하여 역사학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초기에는 독자적인 논리를 구성하지 못하고 일본인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본의 다양한 연구자들과 접촉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논리를 전개하게 된다. 특히 한사군 연구에서 조선시대 실학자들과 당대 일본 역사학자들의 논의를 모두 비판하고, 한사군의 위치와 크기를 새롭게 조정했다. 진번군 재남설로 대표되는 이병도의 한국 고대사 연구는 이를 통해 한반도의 남부에 존재했던 강대한 정치연합체 진국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이병도의 연구는 제국의 아카데미즘에 길항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이병도는 관련 분야에서 그다지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논의를 도리어 국가와 민족에 합일해 갔다.

투고일 2024. 12. 25.

심사일 2025. 2. 16.

게재 확정일 2025. 3. 4.

주제어(keywords) 이병도(Lee, Byeongdo), 실증사학(empirical historiography), 식민사학(colonial historiography), 와세다대학(Waseda University), 한사군(Four Commanderies of Han), 진번군(Jinbeon-gun), 진국(Jin-guk)

## Abstract

### Reexamining Lee Byeongdo's Research on Ancient History During the Colonial Period: Unveiling the Core of Empirical Historiography

Sim, Heechan

This paper aims to examine Lee Byeongdo's research on ancient Korean history during the colonial period. His body of work has been evaluated as both the legacy of colonial historiography and the foundation of empirical historiography. Noteworthy, his research achievements rival those of the metropolitan academic circles, and they have cumulatively built a framework that is distinct from that of Japanese historians. Lee traversed the limits of the methodology of empirical historiography and ventured into the non-empirical realms of intuition and inspiration. He laid the academic groundwork for his historical studies at Waseda University and began his career as a historian in earnest upon returning to colonial Korea. In his early years, he failed to construct an independent logic and thus largely followed the arguments of Japanese historians. However, as he interacted with various Japanese researchers, he began developing his unique perspective. Notably, in his academic work on the Four Commanderies of Han, he criticizes the arguments of Joseon-era Silhak scholars and contemporary Japanese historians and proposes a novel adjustment to their locations and scale. Lee's research, exemplified by the theory of Jinbeon-gun's relocation to the south,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Jin-guk, a powerful political confederation that existed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This research served as a counterpoint to the academic imperialism of the era. However, after liberation, Lee Byeongdo failed to advance distinctive research in the field and instead aligned his arguments with the needs of the state and nation.